

뉴스룸 | 최신기사

## 법원, 조송화 무단이탈 '인정'...연봉도 팀도 모두 잃었다

송고시간 | 2022-01-28 19:36

장현구 기자  
기자 페이지

## 법원 나서는 조송화

(서울=연합뉴스) 하남직 기자 = 배구선수 조송화가 1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심문기일에 참석해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1.14 jks79@yna.co.kr

(서울=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법원에 한 줄기 희망을 걸었던 여자 프로배구 선수 조송화(29)가 최악의 상황에서 빠져 나오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조송화가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통보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먼저 팀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았다는 조송화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IBK기업은행이 서남원 전 감독에게 항명한 조송화와 계약해지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계약 해지에 이르게 된 책임이 조송화에게 있다고 본 셈이다.

이로써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이상 배구계를 뜨겁게 달군 IBK 기업은행과 조송화의 싸움은 일단락됐다.

성적 부진으로 촉발된 IBK기업은행의 극심한 내홍 사태 중심에 주전 세트 조송화가 있었다.

조송화는 작년 11월 중순 두 번이나 팀을 무단으로 이탈했다는 논란을 자초했다. 나중에는 팀에서 나간 뒤 돌아오지도 않았다.

1010회  
모토당첨결과 9 12 15 25 34 36 + 3

## 핫뉴스 →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한국 유튜버,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이나 국경 넘었  
다 귀환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  
등 장계"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래퍼 장용준 1심 실...

가짜 여성계정 운영 의혹' 소개팅앱 내부고발...권익...

박찬욱, 칸 초청에 "기쁜 복소식...오래 기립박수 칠...

반려견도 육식보다는 채식이 더 건강하고 덜 위험해



IBK기업은행 구단은 서남원 전 감독과 단장을 동시에 경질하고 조속히 팀 정상화에 매진하는 한편 내홍 사태의 주동자 격인 조승화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는 일에 착수했다.

바뀐 한국배구연맹(KOVO)의 규정을 알지 못해 조승화의 동의 없이 그를 임의해지 하려던 촌극을 빚기도 했지만, IBK 기업은행은 2021년 12월 13일 조승화의 행동이 선수 계약의 중대한 위배 사항이라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구단과 선수 중 어느 쪽이 잘못했는지 가려야 할 KOVO 상벌위원회가 징계 결정을 보류하자 조승화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2021년 크리스마スイ브에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내고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



#### IBK기업은행, '무단탈탈' 논란' 조승화 계약해지 결정

(서울=연합뉴스) 여자 프로배구 IBK기업은행이 무단탈탈 논란을 빚은 세터 조승화(28)와의 선수계약을 해지했다.

IBK기업은행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승화에 대한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마포구 한국배구연맹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 출석하는 조승화. 2021.12.13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한 달 이상 면밀히 검토한 끝에 IBK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부상이 아닌 휴식 차원이었을 뿐 무단탈탈은 아니었다는 조승화 측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조승화가 서남원 전 감독과의 불화 또는 훈련 방식의 불만 등을 이유로 훈련장과 경기장에 불참한 점을 들어 조승화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또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IBK기업은행 구단과 조승화가 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IBK기업은행의 계약 해지 통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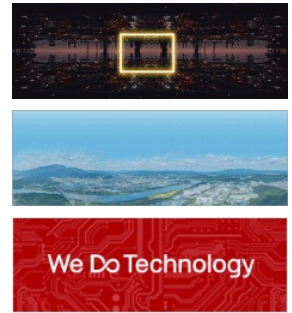
다시 말해 조승화의 무단탈탈을 항명으로 보고, 국내외 프로 스포츠에서 항명을 이유로 무단탈탈한 선수와 계약을 해지한 사례는 많다고 강조한 IBK기업은행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가처분 소송 기각이 본안소송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으나 법원이 이번 소송의 쟁점인 무단탈탈 사안에서 구단 측의 주장을 신뢰했다는 점을 볼 때 조승화 측이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조승화는 자신의 잘못에 따른 계약 해지로 2021-2022시즌 잔여 연봉은 물론 2022-2023시즌 연봉도 못 받는다.

자유신분선수로 공시됐지만, 어느 팀도 불러주지 않아 올 시즌엔 프로배구에서 뛸 수도 없다. 배구 선수로 계속 뛰고 싶다고 읊소했으나 현재 시간과 분위기가 조승화 편이 아닌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cany9900@yna.co.kr



####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상'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법원, 조송화 가처분 기각...IBK 계약해지 효력 유지(종합)  
 새 쟁점..."조송화는 감독 경질 계획' 알고 복귀 의사 밝혔다"  
 조송화 "선수로 뛰고 싶다" vs 기업은행 "구단팬이 원치 않아"  
 페퍼자축은행, 조송화 영입 검토 후 포기 "지탄받게 된다"  
 '이탈사태' 조송화, 올 시즌 못 돌아온다...7개 구단 모두 외면

##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1/28 19:36 송고

#조송화 #IBK기업은행 #무단 #이탈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열뚝뚝...누가 학대했나

▶ 02:22

[영상] 곡사포 수송헬기 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이나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위 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尹당선안 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어"

모임·영업·행사 제한 등 거리두기 완전 해제...마스크는 '유지'

검수완박에 청문장국 '한동훈 블랙홀'까지...여야 끝장대치 예고

1년5개월 만에 전국 평점사회의...검수완박 대응' 논의

기준금리 1.25→1.50% 또 인상...4%대 인플레이션 '불 끄기'

## 댓글 많은 뉴스

1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찰에 고발  
 126

2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대병원 자원봉사  
 59

3 유퀴즈'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안 맞아"(종합)  
 50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염색...조기등판론 속 활동 재개 예정?  
 40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힐 예정"  
 33

뭐하고 놀까? #홍 →

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 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타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테마별뉴스	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 미디어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톱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IR 클럽	#홍

개인사/제휴문의